

##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분화 및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최 인 재<sup>†</sup>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아분화, 우울 및 불안간의 관계와 각 변인들에 대한 성별, 연령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분화와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연구대상은 중학생 262명, 고등학생 314명 및 대학생 306명 등 총 882명(남: 463명, 여: 419명)이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아분화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우울 및 불안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반면, 폐쇄적 의사소통은 자아분화와는 부적인 상관을 우울 및 불안과는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각 연구 변인에 대한 성별, 연령별(중·고·대 학생) 차이 검증결과, 자아통합 및 가족퇴행에서는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고, 연령이 증가 할수록 관련변인의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우울 및 불안에서는 그 반대의 양상을 나타냈다. 즉 여학생 집단의 평균점수가 남학생 집단보다 더 높았고, 연령이 증가 할수록 우울 및 불안 점수가 낮았다. 그리고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가족투사 변인에서는 성별, 연령별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대체로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어머니와의 폐쇄적 의사소통이 유의한 예언변인이었고, 우울과 불안에 대해서는 아버지와의 폐쇄적 의사소통이 상대적으로 유의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아분화, 청소년기 정신건강, 우울, 불안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최인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교총빌딩  
Tel : 02-2188-8876 / FAX : 02-2188-8829 / E-mail : jae713@nypi.re.kr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속하는 시기로, 그 발달단계의 특성상 신체·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이다. 또한 청소년기는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가장 불안정한 상태를 경험하는 시기이며(김광일, 원호택, 김이영, 김명정 1983), 각종 정신질환이 처음으로 발병되는 때이기도 하다(안동현, 홍강의, 1988).

그동안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성격특성, 내·외 통제성향, 스트레스 수준, 가족의 기능정도, 부모-자녀관계, 양육태도, 경제수준, 사회적지지, 환경요인 등 다양하게 검토되어 왔다. 이러한 요소 중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관계를 매개하는 도구로서 개인의 심리발달과 사회 적응에 기초(Barnes & Olson, 1982)가 되는 요소로서 청소년기 자녀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상호작용의 방식에 따라 개방적 의사소통과 폐쇄적 의사소통으로 구분된다(Barnes & Olson, 1982).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녀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 또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 유형이며, 폐쇄적 의사소통 유형은 자녀가 부모에 대해 의사표현을 주저하고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유형을 의미한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과 관련변인들과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이영숙과 김정옥(2002)은 그들의 연구에서 어머니와의 폐쇄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우울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최선남(1990)은 그의 연구에서 모-자녀간 상호 차단 혹은 한 쪽이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폐쇄적 의사소통을

할수록 언쟁이나 폭력 행동이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라고 보고한 바 있다. 임점숙(2000)의 연구에서도 자녀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폐쇄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우울성향이 더 높음을 보고하였다. 반면 노성향(1994)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청소년들의 우울과 불안 수준이 낮았으며, 비행 또한 적게 나타났다고 보고되었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은 자아분화와 의 관계에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사라(2001)와 유혜경(2004)은 그들의 연구에서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자아분화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청소년기의 발달단계에 따른 의사소통의 변화양상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의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 Montemayor(1983)는 그의 연구에서 부모와의 갈등양상은 초기 청소년기에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제시하였고, Cicirelli(1983) 및 Hagestad(1986)의 연구에서도 자녀의 연령증가에 따라 점차 부모와의 갈등양상이 줄어든다고 보고된 바 있다.

한편, Laursen, Coy와 Collins(1998)의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갈등발생의 빈도는 초기 청소년기에서 중기 청소년기로 갈수록 감소하지만 갈등의 강도는 서서히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경우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초기 청소년기 때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빈도가 높겠지만 후기 청소년기로 갈수록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빈도는 감소하고, 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증가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자아분화나 우울 및 불안 역

시 청소년 후기로 갈수록 인지적 발달과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으로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명확한 결과는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에 대한 성별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우울 수준이 남학생들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곽금주, 문은영, 1993; Smetana, Crean, & Daddis, 2002). 의견충돌과 같은 갈등에서도 일반적으로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이 부모와 더 많은 갈등을 보인다고 보고(문충배, 1988; Steinberg, 1990)되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더 많은 의견충돌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신효식, 이경주, 2001; 안병조, 1984)도 있고, 성별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김수연, 1996)도 제시된 바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볼 때, 부모와의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청소년기 자녀의 또래관계나 사회적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녀의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연구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연구대상을 중학생,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과 같이 특정 연령의 표집대상을 한정하여 연구하였거나, 부모 중 한명과의 관계성을 연구하는 등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해 보는 연구는 수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중·고 대학생 전체를 표집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표집대상을 연령별, 성별로 구분하여 발달단계에 따른 변화양상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기에 그 유형률이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보고

(Rutter, Tuma, & Lann, 1988)되는 우울과 불안과의 관련성을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또 다른 변인은 자아분화(self-differentiation)변인으로 자아분화는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인 자기정체성(self-identity)형성과 관련되는 개념이며, 우울 혹은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의 부적측면을 측정하는 개념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비교·검토해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분화 수준 그리고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둘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자아분화 그리고 우울 및 불안에 대해 연령별(중·고·대학생),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셋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아분화와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별,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녀의 자아분화 및 우울과 불안과의 관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연령별, 성별에 따른 관련변인들의 변화양상과 차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방 법

### 연구대상

서울, 경기, 강원 등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 262명(남: 140명, 여: 122명), 고등학생 314명(남: 159명, 여: 155명) 및 대학생

306명(남: 166명, 여: 140명)등 총 882명(남: 463명, 여: 419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중학생 집단의 평균연령은 15.03세(최소: 13세, 최고: 16세,  $SD=.71$ )였고, 고등학생의 평균연령은 16.60세(최소: 15세, 최고: 19세,  $SD=.85$ )이었다. 그리고 대학생의 평균연령은 21.28세(최소: 18세, 최고: 30세,  $SD=2.60$ )로 나타났다.

#### 측정도구

##### 부모-자녀 의사소통척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하고, 정유미(1997)가 번안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방적 의사소통'과 '폐쇄적 의사소통'을 측정하는 문항 각 10 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개방적 의사소통이  $\alpha=.94$ 이었고, 폐쇄적 의사소통은  $\alpha=.87$ 로 나타났다.

##### 자아분화 척도(Differentiation of Self Scales)

개인의 자아분화 수준(level of differentiation)을 측정하기 위해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토대로 제석봉(1989)이 개발한 자아분화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분화 척도는 총 36개의 문항과 5개의 하위요인(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의 통합,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은 지적체계가 정서적 체계에서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며, 자아의 통합은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압력을 받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의 신념과 생활 원리를 잘 견지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의미한다.

또한 가족투사과정은 부모의 미분화 특성을 특정자녀에게 투사하는 과정을 나타내며, 정서적 단절은 부모나 자기 자신의 과거로부터 가출, 고립(孤立), 부정(否定) 등의 방법으로 단절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족퇴행은 가정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족 구성원들이 역기능적인 갈등처리 방법으로 대처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응답한 결과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자아분화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6이었으며, 자아분화의 하위변인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67~.84의 범위로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 정신건강

정신건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김광일 등(1984)이 표준화한 「간이정신진단검사」를 사용하였다. 간이정신진단검사는 9개(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증, 불안증,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증상차원의 총 9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에 대한 응답은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 '전혀 없다' 1점에서 '아주 심하다' 5점으로 구성된 척도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위의 9개의 증상 차원 중 우울증(Depression), 불안증(Anxiety)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수준을 측정하였다. 각각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우울  $\alpha=.89$ , 불안  $\alpha=.88$ 로 높게 나타났다.

##### 분석방법

자료분석에 대한 방법으로 먼저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상관분석을 통해 각 연구 변인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자아분화, 우울 및 불안에 대하여 연령별(중·고·대학생), 성별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이 자아분화 및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검토하였다. 자료처리 및 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WIN 11.0을 사용하였다.

### 결 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자아분화, 정신건강 간의 관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집단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자아분화, 우울 및 불안간의 관계

표 1은 중학생 및 고등학생 집단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자아분화 그리고 우울 및 불안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표이다. 먼저 중학생 집단의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아분화와의 관계에서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아통합, 정서단절, 가족퇴행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r(262)=.20\sim.46, p<.01$ , 폐쇄적 의사소통은 인지정서, 가족투사, 정서단절, 가족퇴행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262)=-.27\sim-.46, p<.01$ . 즉 부모와의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한다고 지각할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에서는 개방적 의사소통은 우울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r(262)=-.21, p<.01$ , 폐쇄

표 1. 의사소통, 자아분화, 우울 및 불안 간의 상관관계 (중학생 n=262, 고등학생, n=314)

	1	2	3	4	5	6	7	8	9
1. 개방의사	-	-.55**	.04	.15**	.17**	.55**	.58**	-.21**	-.16**
2. 폐쇄의사	-.05		-.22**	.03	-.43**	-.53**	-.48**	.28**	.28**
3. 인지정서	-.10	-.29**	-	-.10	.29**	.14**	.20*	-.29**	-.31**
4. 자아통합	.20**	-.17**	-.02	-	-.02	-.03	.20**	.07	.07
5. 가족투사	-.05	-.46**	.43**	-.04	-	.33**	.21**	-.17**	-.17**
6. 정서단절	.31**	-.44**	.22**	.00	.35**	-	.58**	-.24**	-.23**
7. 가족퇴행	.46**	-.27**	.14*	.18**	.13*	.53**	-	-.31**	-.30**
8. 우 울	-.21**	.24**	-.35**	-.08	-.21**	-.36**	-.29**	-	.83**
9. 불 안	-.10	.24**	-.34**	-.09	-.18**	-.26**	-.22**	.82**	-

\* $p<.05$ . \*\* $p<.01$ .

주1. 개방의사: 개방적 의사소통, 폐쇄의사: 폐쇄적 의사소통

인지정서: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통합: 자아의 통합, 가족투사: 가족투사과정

주2. 대각선 위는 고등학생 집단, 아래는 중학생 집단의 상관관계 결과표임

적 의사소통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에서는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262)=.24, p<.01$ .

다음으로 자아분화와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인지정서, 가족투사, 정서단절, 가족퇴행 그리고 우울 및 불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262)=-.18\sim-.36, p<.01$ .

고등학생 집단의 경우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아분화의 하위 변인 중 자아통합, 가족투사, 정서단절, 가족퇴행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314)=.15\sim.58, p<.01$ . 그리고 우울 및 불안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r(314)=-.16\sim-.21, p<.01$ . 폐쇄적 의사소통과 자아분화와의 관계에서는 인지정서, 가족투사, 정서단절, 가족퇴행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r(314)=-.22\sim-.53, p<.01$ , 우울 및 불안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314)=.28, p<.01$ .

자아분화의 하위요인과 우울 및 불안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중학생 집단과 같이 자아통합을 제외한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가족

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이 우울 및 불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314)=-.17\sim-.31, p<.01$ .

**대학생집단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자아분화, 우울 및 불안 간의 관계**

표 2는 대학생 집단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제시한 결과표이다. 중·고등학생집단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개방적 의사소통과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자아통합, 가족투사, 정서단절, 가족퇴행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r(306)=.14\sim.57$ , 우울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r(306)=-.19, p<.01$ .

폐쇄적 의사소통과 자아분화와의 관계에서는 폐쇄적 의사소통과 자아분화의 모든 하위 변인들 간에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r(306)=-.12\sim-.48$ , 우울 및 불안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306)=.25\sim.26, p<.01$ .

마지막으로 자아분화와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중학생 및 고등학생 집단의 결과와 조금은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즉 우

표 2. 의사소통, 자아분화, 우울 및 불안 간의 상관관계(대학생 집단, n=306)

	1	2	3	4	5	6	7	8	9
1. 개방의사	-								
2. 폐쇄의사	-.45**	-							
3. 인지정서	.04	-.32**	-						
4. 자아통합	.25**	-.12*	-.11	-					
5. 가족투사	.14*	-.37**	.40**	-.01	-				
6. 정서단절	.51**	-.45**	.22**	-.02	.24**	-			
7. 가족퇴행	.57**	-.48**	.21**	.13*	.14*	.52**	-		
8. 우울	-.19**	.25**	-.21**	-.16**	-.13*	-.13*	-.23**	-	
9. 불안	-.07	.26**	-.24**	-.12*	-.11	-.10	-.21**	.79**	-

\* $p<.05$ . \*\* $p<.01$ .

울은 자아분화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r(306) = -.13 \sim -.23$ , 불안과의 관계에서는 인지정서, 자아통합, 가족퇴행에서만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있었다,  $r(306) = -.12 \sim -.34$ .

####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자아분화 및 정신건강에 대한 차이검증

#####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대한 연령별, 성별 차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대한 연령별, 성별 차이 검증을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연령별,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폐쇄적 의사소통에서만 연령별,  $F(2, 882) = 4.42, p < .05$ , 주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F(2, 882) = 1.44, ns$ .

폐쇄적 의사소통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중학생 집단( $M=4.20$ )과 대학생 집단( $M=3.96$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차이를 나타냈다.

##### 자아분화에 대한 연령별, 성별 차이

자아분화에 대하여 연령별, 성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아분화의 하위변인 중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에서는 연령별, 성별에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F(2, 882) = 9.14, p < .001$ . 가족투사에 대해서도 역시 연령별, 성별에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F(2, 882) = 6.00, p < .01$ . 상호작용 효과를 보인 두 하위변인은 그림 1과 2에 각각 제시하였다.

자아통합,  $F(2, 882) = 8.19, p < .001$ ,과 가족퇴행,  $F(2, 882) = 10.55, p < .001$ ,에 있어서는 연령

별 주효과가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에 대한 Scheffé 사후검증 결과 자아통합의 경우 고등학생 집단의 평균( $M=4.44$ )과 대학생집단의 평균( $M=4.55$ )이 중학생 집단의 평균( $M=4.25$ )보다 의미 있게 더 높은 결과를 나타냈고, 가족퇴행에서는 대학생 집단의 평균( $M=5.09$ )이 중학생 집단의 평균( $M=4.73$ )과 고등학생집단의 평균( $M=4.88$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자아통합,  $F(1, 882) = 43.40, p < .001$ ,과 가족퇴행,  $F(1, 882) = 17.01,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주효과가 있었다.

성별간 차이에 대한 Scheffé 사후검증 결과 자아통합에서는 남학생 집단의 평균( $M=4.61$ )이 여학생 집단의 평균( $M=4.22$ )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고, 가족투사에도 남학생 집단의 평균( $M=5.03$ )이 여학생 집단의 평균( $M=4.77$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자아분화의 하위변인 모두를 더한 자아분화에 대한 연령별×성별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F(2, 882) = 4.89, p < .01$ .

##### 정신건강에 대한 연령별, 성별 차이

우울 및 불안에 대한 연령별, 성별 차이에 대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우울에 대해서는 연령,  $F(2, 882) = 6.76, p < .01$ , 성별,  $F(1, 882) = 30.62, p < .001$ ,에서 각각 유의한 주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불안에 대해서는 우울과 마찬가지로 연령별,  $F(2, 882) = 13.49, p < .001$ , 성별,  $F(1, 882) = 15.48, p < .001$ ,에서 유의한 주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위의 두 변인 모두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우울 및 불안을 모두 합한 결과에서는 연령별 주효과가 있었고,  $F(2, 882) = 10.23, p < .001$

표 3. 자아분화에 대한 연령별, 성별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연령별 (n=882)									성별 (n=882)	
	중학생(n=262)			고등학생(n=314)			대학생(n=306)			남학생	여학생
	M(SD)			M(SD)			M(SD)			(n=463)	(n=419)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M(SD)	M(SD)
자아분화	4.44(.64)	4.15(.63)	4.30(.64)	4.55(.69)	4.49(.66)	4.52(.68)	4.74(.60)	4.78(.64)	4.75(.62)	4.58(.66)	4.49(.69)
인지·정서	3.99(.96)	3.56(.92)	3.79(.97)	4.18(1.02)	4.04(.92)	4.11(.97)	4.37(1.05)	4.64(.96)	4.50(1.02)	4.19(1.02)	4.10(1.03)
자아통합	4.36(.71)	4.13(.82)	4.25(.77)	4.69(.92)	4.19(.85)	4.44(.92)	4.74(.91)	4.32(.90)	4.55(.93)	4.61(.87)	4.22(.86)
가족투사	4.01(1.31)	3.93(1.22)	3.98(1.27)	4.01(1.24)	4.62(1.17)	4.32(1.24)	4.84(1.09)	5.14(1.14)	4.98(1.12)	4.31(1.27)	4.60(1.27)
정서단절	4.55(1.28)	4.44(1.46)	4.50(1.37)	4.55(1.32)	4.66(1.36)	4.61(1.34)	4.30(1.04)	4.60(1.25)	4.44(1.15)	4.46(1.22)	4.57(1.35)
가족퇴행	4.94(.82)	4.48(.98)	4.73(.93)	4.98(1.04)	4.78(1.00)	4.88(1.03)	5.15(.95)	5.01(.91)	5.09(.93)	5.03(.95)	4.77(.99)

표 4. 자아분화에 대한 연령별, 성별 차이검증

종속변인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scheffe
자아분화	연령별(A)	30.43	2	15.22	36.72***	중<고<대
	성별(B)	2.27	1	2.27	5.47*	
	A*B	4.05	2	2.03	4.89**	
인지·정서기능	연령별(A)	75.66	2	37.83	39.67***	중<고<대
	성별(B)	2.19	1	2.19	2.29	
	A*B	17.43	2	8.72	9.14***	
자아통합	연령별(A)	12.10	2	6.05	8.19***	중<고,대
	성별(B)	32.06	1	32.06	43.40***	
	A*B	2.94	2	1.47	1.99	
가족투사	연령별(A)	152.85	2	76.42	53.69***	중<고<대
	성별(B)	16.89	1	16.89	11.86**	
	A*B	17.07	2	8.54	6.00**	
정서단절	연령별(A)	4.10	2	2.05	1.25	
	성별(B)	2.18	1	2.18	1.33	
	A*B	5.67	2	2.84	1.72	
가족퇴행	연령별(A)	19.29	2	9.64	10.55***	중, 고<대
	성별(B)	15.55	1	15.55	17.01***	
	A*B	4.00	2	2.00	2.19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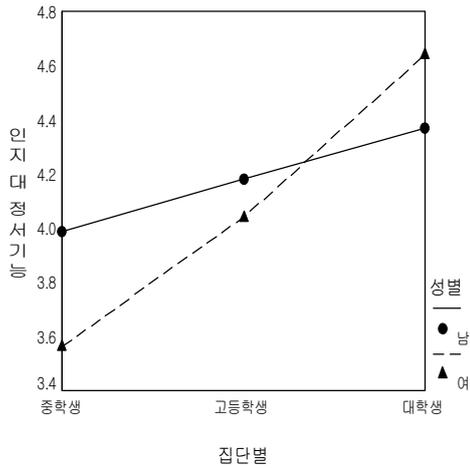


그림 1. 연령별×성별 인지 대 정서기능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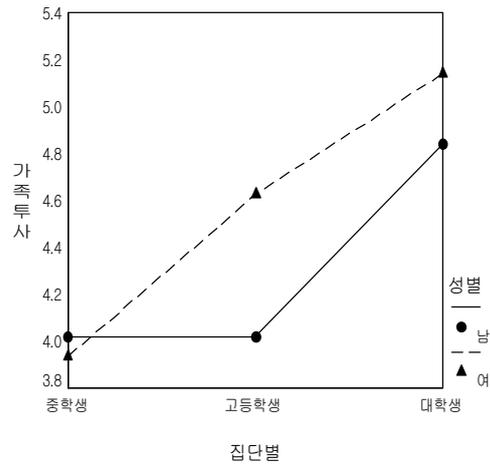


그림 2. 연령별×성별 가족투사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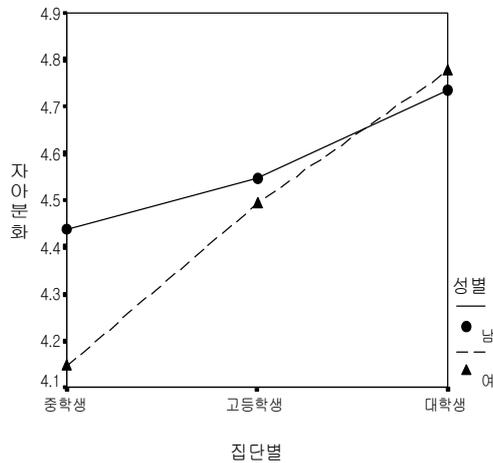


그림 3. 연령별×성별 자아분화의 상호작용

성별에서도 유의한 주효과가 나타났다,  $F(1, 882)=25.05, p<.001$ . 그러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Scheffé 사후검증법을 통한 분석결과 우울에서는 중학생 집단의 평균( $M=2.06$ )이 고등학생 집단의 평균( $M=1.86$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불안에서는 중학생 집단의 평균( $M=1.88$ )이 고

등학생 집단의 평균( $M=1.62$ )과 대학생집단의 평균( $M=1.66$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울 및 불안을 합한 결과에서도 중학생 집단의 평균( $M=1.97$ )이 고등학생 집단의 평균( $M=1.74$ )과 대학생 집단의 평균( $M=1.81$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 차이에서는 우울(남:  $M=1.84$ , 여:  $M=$

표 5. 우울·불안에 대한 연령별, 성별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연령별 (n=882)									성별 (n=882)	
	중학생 (n=262)			고등학생 (n=314)			대학생 (n=306)			남학생 (n=463)	여학생 (n=419)
	M(SD)			M(SD)			M(SD)			M(SD)	M(SD)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우울·불안	1.84( .73)	2.13( .69)	1.97( .73)	1.66( .65)	1.83( .62)	1.74( .64)	1.72( .56)	1.92( .63)	1.81( .60)	1.74( .65)	1.95( .66)
우울	1.89( .76)	2.26( .73)	2.07( .77)	1.76( .69)	1.97( .70)	1.86( .70)	1.87( .64)	2.08( .69)	1.97( .67)	1.84( .70)	2.09( .71)
불안	1.78( .76)	2.00( .74)	1.88( .76)	1.56( .67)	1.69( .61)	1.62( .64)	1.57( .54)	1.75( .64)	1.66( .59)	1.63( .66)	1.80( .67)

표 6. 우울·불안에 대한 연령별, 성별 차이검증

종속변인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scheffe
우울·불안	연령별(A)	8.53	1	4.26	10.23***	중>고, 대
	성별(B)	10.44	1	10.44	25.05***	
	A*B	.64	2	.32	.77	
우울	연령별(A)	6.64	2	3.32	6.76**	중>고
	성별(B)	15.04	1	15.04	30.62***	
	A*B	1.26	2	.63	1.28	
불안	연령별(A)	11.65	2	5.83	13.49***	중>고, 대
	성별(B)	6.68	1	6.68	15.48***	
	A*B	.31	2	.16	.36	

\*p<.05. \*\*p<.01. \*\*\*p<.001.

2.09)과 불안(남: M=1.63, 여: M=1.80), 정신건강(남: M=1.74, 여: M=1.95)에서 모두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의 평균보다 더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부모-자녀의사소통이 자아분화와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

표 7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하위변인

들을 예언변인으로 하고 자아분화를 준거변인으로 하여 연령별, 성별에 따른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방법은 단계적(stepwise) 방식을 사용하였다.

중학생집단의 경우 자아분화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어머니와의 폐쇄적 의사소통,  $\beta=-.47, p<.001$ ,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변인 이었다,  $\beta=.31, p<.001$ . 이 변인들은 자아분화의 전체변량 가운데, 어머니와의 폐쇄적 의사소통이 24%,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

표 7.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

준거변인	집 단	예언변인	$\beta$	$R^2$	$\Delta R^2$	$\Delta F$
중학생	남	모(母)-폐쇄적 의사소통	-.55***	.30	.30	58.53***
		부(父)-개방적 의사소통	.44***	.26	.26	41.44***
	여	모(母)-폐쇄적 의사소통	-.41***	.42	.16	33.74***
		부(父)-개방적 의사소통	.31***	.33	.09	36.14***
	전체	모(母)-폐쇄적 의사소통	-.47***	.24	.24	79.73***
		부(父)-개방적 의사소통	.31***	.33	.09	36.14***
자아분화	남	부(父)-개방적 의사소통	.47***	.34	.34	79.76***
		모(母)-폐쇄적 의사소통	-.35***	.44	.10	30.01***
	여	부(父)-폐쇄적 의사소통	-.49***	.41	.41	104.63***
		부(父)-개방적 의사소통	.23***	.43	.02	7.48**
	전체	부(父)-폐쇄적 의사소통	-.23***	.35	.35	168.54***
		부(父)-개방적 의사소통	.36***	.43	.08	40.84***
대학생	남	부(父)-폐쇄적 의사소통	-.43***	.29	.29	66.32***
		모(母)-개방적 의사소통	.21***	.39	.10	27.66***
	여	부(父)-개방적 의사소통	.18***	.41	.02	4.23*
		모(母)-폐쇄적 의사소통	-.52***	.38	.38	87.42***
	전체	부(父)-개방적 의사소통	.31***	.47	.09	22.01***
		모(母)-폐쇄적 의사소통	-.48***	.33	.33	148.32***
		부(父)-개방적 의사소통	.36***	.45	.12	65.31***

\* $p < .05$ . \*\* $p < .01$ . \*\*\* $p < .001$ .

소통이 9%를 각각 설명하여 자아분화 전체변량의 33%를 설명하였다.

고등학생 집단의 경우 아버지와의 폐쇄적 의사소통 변인과,  $\beta = -.23, p < .001$ ,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변인,  $\beta = .36, p < .001$ , 어머니와의 폐쇄적 의사소통 변인이 유의한 예언변인들이었다,  $\beta = -.19, p < .001$ .

마지막으로 대학생집단은 중학생집단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와의 폐쇄적 의사소통 변인과,  $\beta = -.48, p < .001$ , 아버지와의 폐쇄적 의사소통 변인이, 유의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  $\beta = .36, p < .001$ . 그리고 이들 변인들은 자아분화

전체변량의 45%를 설명하였다.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에서는 집단별로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어머니와의 폐쇄적 의사소통,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대체로 자아분화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표 8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하위변인들을 예언변인으로 하고 우울과 불안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연령별, 성별에 따른 중다회귀

표 8.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준거변인	집 단	예언변인	$\beta$	R <sup>2</sup>	$\Delta R^2$	$\Delta F$	
우울	중학생	남	모(母)-폐쇄적 의사소통	.26**	.07	.07	9.80**
		여	모(母)-개방적 의사소통	-.23*	.09	.09	11.08**
			모(母)-폐쇄적 의사소통	.22*	.13	.04	5.79*
		전체	모(母)-폐쇄적 의사소통	.23***	.06	.06	15.79***
	부(父)-개방적 의사소통		-.17**	.09	.03	8.54**	
	고등학생	남	부(父)-폐쇄적 의사소통	.32***	.11	.11	18.41***
		여	부(父)-폐쇄적 의사소통	.29***	.08	.08	13.60***
		전체	부(父)-폐쇄적 의사소통	.23***	.09	.09	28.80***
	대학생	남	-	-	-	-	-
		여	부(父)-폐쇄적 의사소통	.32***	.10	.10	15.95***
		전체	부(父)-폐쇄적 의사소통	.21***	.06	.06	18.56***
			모(母)-개방적 의사소통	-.12*	.70	.01	4.01*
불안	중학생	남	모(母)-폐쇄적 의사소통	.24**	.06	.06	8.15**
		여	모(母)-폐쇄적 의사소통	.26**	.07	.07	8.61**
		전체	모(母)-폐쇄적 의사소통	.23***	.05	.05	14.50***
	고등학생	남	부(父)-폐쇄적 의사소통	.33***	.11	.11	19.35*
		여	부(父)-폐쇄적 의사소통	.25**	.06	.06	10.26**
		전체	부(父)-폐쇄적 의사소통	.29***	.08	.08	27.77***
	대학생	남	부(父)-폐쇄적 의사소통	.20*	.04	.04	6.49*
		여	부(父)-폐쇄적 의사소통	.43***	.08	.08	12.87***
		전체	부(父)-폐쇄적 의사소통	.25***	.06	.06	20.59***

\* $p < .05$ . \*\* $p < .01$ . \*\*\* $p < .001$ .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중학생 집단의 경우 우울을 유의하게 설명한 변인은 어머니와의 폐쇄적 의사소통 변인과,  $\beta = .23$ ,  $p < .001$ ,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변인이었다,  $\beta = -.17$ ,  $p < .01$ . 고등학생 집단의 경우는 아버지와의 폐쇄적 의사소통이 유의한 예언변인이었고, 대학생 집단의 경우 아버지와 폐쇄적 의사소통 변인과,  $\beta = .21$ ,

$p < .001$ ,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변인이 유의하였다,  $\beta = -.12$ ,  $p < .05$ .

불안에 대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학생 집단의 경우 어머니와의 폐쇄적 의사소통이 유의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  $\beta = .23$ ,  $p < .001$ . 고등학생과 대학생 집단의 경우는 모두 아버지와 폐쇄적 의사소통이 유의한 예언변인이었다.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에서는 중학교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와의 폐쇄적 의사소통이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beta=.26, p<.01$ . 여학생의 경우는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beta=-.23, p<.05$ , 변인과 어머니와의 폐쇄적 의사소통 변인이 유의한 예언변인이었다,  $\beta=.22, p<.05$ .

고등학생과 대학생 집단의 경우 남·여학생 모두 아버지와의 폐쇄적 의사소통이 우울과 불안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 논 의

이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아분화,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와 각 연구 변인에 대한 연령별, 성별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령별, 성별에 따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아분화 및 우울과 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아분화, 우울 및 불안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중·고·대학생 집단 모두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즉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아분화의 하위요인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우울 및 불안과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반면, 폐쇄적 의사소통 유형은 개방적 의사소통의 결과와는 반대로 자아분화 하위변인들과 부적인 관계를 그리고 우울 및 불안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분화, 우울 및 불안간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권미영, 1993; 김숙희, 전귀연,

1999; 노성향, 1994; 유혜경, 2004; 임점숙, 2000; 장사라, 2001; Kear, 1978; Ellen, 1984)과 유사한 결과이다. 특징적인 점은 세 집단 모두 개방적 의사소통과 우울 및 불안간의 관계보다 폐쇄적 의사소통과 우울 및 불안간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둘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연령별, 성별 차이 검증 결과 개방적 의사소통은 연령별,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폐쇄적 의사소통에서만 연령별 차이가 나타났다. 즉 중학생 집단이 대학생 집단보다 폐쇄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한 부모-자녀 간 갈등양상의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들(Cicirelli, 1983; Hagestad, 1986; Montemayor, 1983)과 비슷한 결과로 청소년 후기로 갈수록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아분화에 대한 연령별, 성별 차이 분석에서는 자아통합과 가족퇴행에서 연령별,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증가 할수록 자아통합 수준은 높았으며, 가족퇴행 수준은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별 차이에서는 두 변인 모두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자아통합 수준은 높고, 가족퇴행은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자아분화 변인과 자아분화의 하위변인인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가족투사 변인에서는 연령별, 성별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상호작용효과를 보인 변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변인과 가족투사 변인의 경우 남·여학생 모두 중학생에서 대학생으로 갈수록 점차 증가하였는데, 여학생집단의 경우 그 증가폭

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 즉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의 경우 중학교 남학생집단에서는 여학생집단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으나, 고등학생집단에서는 그 차이가 점차 작아지고, 대학생집단에서는 오히려 여학생집단의 평균 점수가 남학생집단의 평균점수보다 더 높았다(그림 1). 또한 가족투사에서도 중학교 남학생 집단의 평균 점수가 여학생집단의 평균 점수보다 더 높았으나, 고등학생 및 대학생집단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그림 2).

하위변인 전체를 더한 자아분화 변인에 대한 상호작용효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그림 3). 즉 중학생 집단에서 남학생의 자아분화 평균점수가 여학생집단의 평균점수보다 훨씬 높았지만, 그 차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차 줄어들고, 대학생 집단에서는 오히려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의 자아분화 평균점수보다 더 높은 결과를 나타낸 것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증가한다는 김치영(1990)의 연구나 이혜숙(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흥미로운 점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여학생집단 모두 자아분화수준이 높아지지만, 남학생집단의 상승폭이 작다는 점이다. 특히 자아분화의 하위변인 중 지적체계가 정서적 체계에서 분화되어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과 부모의 미분화 특성을 투사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가족투사변인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것은 양육과정에서 아들이 딸보다 부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차별적 영향(Schaeffer & Bayley, 1963)의 원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한국의 문화적 특징에

기인한 것인지 문화보편적 현상인지는 추후 연구를 통해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울과 불안에 대한 연령별, 성별 차이 분석에서는 우울 및 불안 모두 연령별,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중학생 집단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집단보다 우울, 불안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 차이에서는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보다 우울과 불안 수준이 더 높았다. 연령별 차이에 대한 결과는 의사소통이나 자아분화에 대한 결과와 유사한 형태인 청소년기 초기보다는 청소년기 후기로 갈수록 더 적응적인 양상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특징적인 점은 여학생 집단의 자아분화 수준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울과 불안 수준은 여학생 집단의 평균이 남학생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우울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아동기 때는 우울 증상의 성별차이가 없으나,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여자의 유병률이 급속하게 증가하며(Reynolds, 1985), 13세 이상 청소년집단에서는 성인보다 오히려 더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고 보고(Rutter, 1988, Garrison, Schoenbach., & Kaplan, 1984)되었다.

우울증의 성차에 대한 국내의 관련 연구들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여자의 우울 수준이 남자의 우울 수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서국희, 조명계, 1997)된 바 있다. 소아·청소년의 우울증에 대한 발달학적 측면에 대해 연구한 강경미(1994)의 연구에서도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지속적으로 우울증의 유병률이 더 높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2001)의 조사에도 우울장애의 1년 유병률이 남자(1.0%)보다 여자(3.8%)가 더 높게 나타난 바

있어 서양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우울증의 성차에 대해 Hoeksema (1987)는 여성의 경우 우울한 기분의 원인을 되풀이 하여 생각함으로써 우울감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하였고, Sroufe와 Rutter (1984)는 남자의 경우 내적인 갈등이나 불행감을 외현적인 행동으로 표출하지만, 여자의 경우는 내현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셋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대체로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어머니와의 폐쇄적 의사소통이 유의한 예언변인이었고, 우울과 불안에 대해서는 아버지와의 폐쇄적 의사소통이 다른 변인들 보다 상대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울과 불안은 남 여 집단 모두 아버지와의 폐쇄적 의사소통이 가장 큰 예언변인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아버지와 효율적 의사소통 관계가 청소년들의 심리건강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 부모와의 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분화 수준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심리건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적응 수준은 줄어들며, 자아분화 수준은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개인의 심리발달과 사회적응에 연령이 하나의 중요 요소가 됨을 시사한다.

또한 여학생 집단의 경우 남학생 집단보다 자아분화 수준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울과 불안 같은 심리부적응 요소가 남학생 집단보

다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앞서 제시한 성별에 따른 대처 방식의 차이가 심리부적응 요소를 증가시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아닐까 사료된다.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결과는 후속 연구를 통해 검증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으로 먼저 동일한 연구대상을 종단적 연구방법(longitudinal method)을 통해 한 개인의 발달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서 자녀가 지각한 측면만을 측정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자녀를 한 쌍으로 한 연구를 통해 부모-자녀 상호간의 지각차이에 따른 양상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강경미 (1994). 소아기 우울증: 소아기 우울증의 개관과 발달학적 측면.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5(1), 3-11.
- 곽금주, 문은영 (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9-43.
- 권미영 (1993).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부적응 증상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석사학위 청구 논문*.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광일, 원호택, 김이영, 김명정 (1983).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신건강 실태연구*(1), 개인

- 집중조사에 의한 소견, 정신건강연구 1, 1-44,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 김수연 (1996).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에 관련된 변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숙희, 전귀연 (1999).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기 자녀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상주대학교 논문집, 9.
- 김치영 (1990). 청소년의 자아분화 수준 및 부모-자녀간 커뮤니케이션 정도와의 관계.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성향 (199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충배 (1988).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 대전시 중학생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보건복지부 (2001). 보건복지부 용역연구보고서.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자료.
- 서국희, 조맹제 (1997). 지역사회거주 청소년의 우울증상 유병율. 서울대정신의학, 144, 113-126.
- 신효식, 이경주 (2001). 청소년 자녀의 부모와의 갈등과 갈등표출방식. 대한가정학회지, 39, 29-38.
- 안동현, 홍강의 (1988). 청소년의 급성 신경장애. 신경정신의학, 27(3), 435-440.
- 안병조 (1984). 고등학교 학생에 있어서 갈등상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혜경 (2004). 부모양육태도 및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과 남자 중학생 자아분화 수준과의 관계. 호서대학교 여성문화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숙, 김정옥 (200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2), 133-159.
- 이혜숙 (1992).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서울지역 남·녀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점숙 (2000). 아버지와 자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자녀의 우울 성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사라 (200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녀의 자아분화도와의 관계.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유미 (1996).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 행동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제석봉 (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선남 (1990). 청소년의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갈등표출방법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arnes, H.,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Cicirelli, V. G. (1983). A Comparison of helping behavior to elderly parents of adult children with intact and disrupt marriages. *The Gerontologist*, 23(6), 619-625.
- Ellen, J. E. (1984).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iation of self, complementary psychological need patterns and marital conflic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
- Garrison, C. Z., Schoenbach, V., & Kaplan, B. (1984). *Depression in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 NY: Brunner Maze.
- Hagastard, G. O. (1986). Dimension of time and the family. *American Behavior Scientist*, 29, 679-694.
- Hoeksema, S. N. (1987). Sex difference in unipolar depression: Evidence and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101, 259-282.
- Kear, J. (1978). *Marital satisfaction and attraction as a function of differentiation of self*.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of Psychology. Fresno Camps.
- Laursen, B., Coy, K., & Collins, W. A. (1998). Reconsidering changes in parent-child conflict across adolescence: A meta-analysis. *Child development*, 69, 817-832.
- Montemayor, R. (1983). Parents and adolescents in conflict: All families some of the time and some families most of the tim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 83-103.
- Reynolds, W. M. (1985). Dep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diagnosis, assessment, intervention strategies and research. In T. R. Kratochwill(Ed.), *Advances in school psychology*. Hillsdale, NJ: Lawrence Earlbaum.
- Rutter, M. (1988). *Assessment and diagnosis in child psychopathology*. New York: Gilford Press.
- Rutter, M., Tuma, A. J., & Lann, S. (1988). *Assessment and diagnosis in child psychopathology*. New York: Guilford Press.
- Scheffer, E. S., & Bayler, N. (1963). Maternal behavior, child behavior and their intercorrelations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In Child Develop*, 28.
- Smetana, J. G., Crean., H. F., & Daddis, C. (2002). Family process and problem behaviors in middle-class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2, 275-304.
- Sroufe, L. A. & Rutter, M. (1984). The domain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Child development*, 55, 17-29.
- Steinberg, L. (1990). Interdependent in the family: Autonomy, conflict, and harmony in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In S. S. Feldman., & G. R. Elliot(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ment adolescent* (pp. 255-276).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원고접수일 : 2006. 9. 26.  
게재결정일 : 2007. 4. 12.

##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Adolescent's Self-differentiation, Depression and Anxiety**

**In-Jae Choi**

National Institute for Youth Polic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adolescent's self-differentiation, depression and Anxiety. Participants for this study were 882 students (middle school students: 262, high school students: 314, undergraduate students: 306). The following was the results. First, Open communication and self-differentiation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but negative correlations with depression and anxiety. Whereas, closed communication negatively associated with self-differentiation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and anxiety. Secondl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elf-differentiation, depression and anxiety according to the group of ages and sex. Also, There wer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 group of ages and sex, on the intelligence/emotion function, family projection and self-differentiation variables. Lastly, for the adolescence's depression and anxiety closed communication with the father was found to be main significant predictor. Implications of the current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presented.

*Key words :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elf-differentiation, mental health*